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2월

선교편지 제 86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에 교회가 건축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6 여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당시 새롭게 설립된 '마띠 고등학교'내에서 학생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작함으로 디고스 지역 선교가 태동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이곳 시골 마을에, 외국 선교사가 매주 찾아와 고등학생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게 됨에 따라,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성경과 찬양을 가르치고, 영화도 보여 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고, 간식을 나누며,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닌 꾸준히 참석하는 25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여, 성경 암송 훈련과 함께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주 안에서 학생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에 속한 학생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너무도 답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무살도 안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기 낳고 집안 살림을 하던지, 아니면 인근 도시에 가정부로 취업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진로 입니다. 남학생들은 건축 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하거나 바나나 농장등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이 그들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 보지만,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학생들이 변화되어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힘있게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램이 있었지만, 주님의 손이 외딴 이곳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 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헌신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반에 속한 25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학금을 받아 현지 대학으로 진학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저희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지인들께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 오셔서 넘치도록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사역 1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벌써 대학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년전에는 장학생 10명이 더 추가되어 모두 35명의 장학생들이 디고스의 복음의 꿈나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끝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삶과 학교와 가정까지도 깊이 연결되어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으며 쑥쑥 자라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보이는 '돈'(학비)만 기대하고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서 감사해 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을 쓸데없이 대학교로 보냈다고 저희들을 원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으로 인하여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된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언젠가 깨닫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3 기 장학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역시 제가 부탁을 드리기 전에, 어려운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장학금을 '먼저'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26명의 학생들을 적어도 4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장학생들을 위하여 오랜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이 1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하여 외부 강사도 초빙하여 말씀과 기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을 기억하며 장학금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즐겁게 친교를 나누며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사용하실지 너무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주변에도 주님의 손길이 미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장학사역에 함께해 주신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장학 사역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주의 자녀들로 잘 자랄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7~40)**



디고스에 교회가 설립되기 전, 저희들의 주된 사역은 디고스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연령이나, 환경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저희의 대상이었는데,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나 현지 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으로 전천후 역할을 감당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특별한 워십 댄스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바오 내의 비교적 큰 교회의 찬양팀의 협조를 얻어서 제 아내가 몇 주간이나 별도의 과외수업(?)을 받은 후에 디고스의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저희가 받은 은사를 넘어선 역할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디고스 예일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의 중심이 '학교'에서 '교회'로 옮겨지고, 또 복음의 대상이 다양한 연령의 교인들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했던 저희들만의 사역 방식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디고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매주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교인들이 출석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연령별로 각 부서를 조직하게 되고,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도 유아, 유년, Youth, 장년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와 남, 녀 전도회도 조직을 하고, 각종 봉사도 나누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고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이전에 타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해 본 경험이 있는 '한 가정'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인들이 디고스 교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하고,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고,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새롭게 믿기 시작한 교인들 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앞선 분을 찾아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고, 아슬 아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는 물론 부서별로 회중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부족해서, 교회 성장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모색해야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이곳 다바오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현지 담임 목회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디고스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 하고, 자격이 되는 사역자들을 소개 또는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동감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 현지 목회자들도 다바오가 아닌 디고스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사역을 하려면, 단순한 목회지 이동이 아니라 선교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기존 교회가 아닌 '신학 대학교'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학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한 교단에서 운영하는 4년제 신학 대학교 다섯 곳을 방문하여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학교뿐만 아니라, 재학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다섯 개의 대학중에 세 곳은 이곳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신학교인데도, 아직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학교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준으로 보면, 대학교라고 부르기에 많이 부족한 가운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정규 신학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없는, 동일 교단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제한된 학위를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학년 재학생은 20~30여명 정도가 되는데, 학년이 올라 가면서 점점 인원이 줄어 들어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명 내외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학업을 포기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헌신된 현지 신학생들이 자격을 갖춘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도움을 받으려고 갔다가, 도리어 많은 생각과 더불어 부담만 안고 돌아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때를 맞추어 연약한 신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 선교지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들께서 현지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예상 밖으로 많은 장학금을 작성해 주셔서, 디고스의 장학 사역 뿐만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20명의 신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하는 전액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때가 되어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하시리라 생각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두달간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 추천하는 여러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명의 학생도 예외없이 학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중에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감격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필요를 따라 제가 먼저 신학교를 찾아 가서 학생들을 만난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신학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흠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장학금을 동원하게 하시고 모두를 대신하여 제가 전달하게 하신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들 중에 5명이 금년부터 디고스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해서 저희 디고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채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명의 교육 전도사와 신학교 지도 교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